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 비교 연구

- 생태학적 세계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Vergleichstudie über die Ökolyrik in Deutschland und Korea – Mit
Fokussierung auf ökologische Weltanschauung

저자 송용구
(Authors) Song, Yong Ku

출처 카프카연구 28, 2012.12, 369–397 (29 pages)
(Source) [Franz Kafka 28](#), 2012.12, 369–397 (29 pages)

발행처 [한국카프카학회](#)
(Publisher) Koreanische Kafka 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69569>

APA Style 송용구 (2012).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 비교 연구. 카프카연구, 28, 369–397.

이용절차 고려대학교
163.152.3.39
(Accessed) 2016/03/07 16:12 (KST)
본 문서에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 비교 연구*

- 생태학적 세계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용구 (고려대)

I. 들어가는 말

- 문제 제기와 연구 방향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된 현대시를 독일어권 문단에서는 “생태시 Ökolyrik”¹⁾ 또는 “생태학적 시 Ökologische Lyrik”²⁾라고 명명해왔다. 1866년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 Ernst Haeckel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던 “생태학 Ökologie”의 개념과 시 Lyrik가 결합되어 “생태시”라는 명칭이 형성되었다. 헤켈의 견해에 따르면 “생태학”이란 특정한 유기체와 주변 환경 간의 연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물, 공기, 흙과 동식물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생물들 간의 연관 시스템을 밝혀내고 중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0283)

1) P. C. Mayer—Tasch, 「Ö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 hrsg. v. P. C. Mayer—Tasch, München 1981, S. 11.

1981년 페터 코르넬리우스 마이어-타쉬의 논문 「생태시는 정치적 문화의 기록물 Ö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에서 처음으로 ‘생태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특히, 그의 논문은 1981년 뮌헨의 출판사 ‘체. 하. 베크 C. H. Beck’에서 출간된 생태시선집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의 지침 Einleitung 역할을 맡고 있다.

2) Ebd., S. 9.

(種)의 생존 조건을 규명하는 학문이다.³⁾ 이러한 생태학적 인식에서 생겨난 생태주의 패러다임, 정치현실 및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 환경운동의 이념 등이 생태시의 정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⁴⁾ 필자는 생태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규정해보았다.

(1) 생태시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이 손상되는 상황을 직설적 어법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2) 생태시는 전쟁, 핵개발, 개발사업, 건설사업 등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정치 및 사회적 원인들을 비판하면서 선언문적 어법을 통해 그 원인들에 대한 개혁을 호소한다. (3) 생태시는 이성만능주의, 물신주의, 배급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성장제일주의 등 인간의 잘못된 의식구조로 인하여 도구와 물건으로써 사용되는 자연과 생물을 도구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 물건이 아닌 생명 그 자체로서 존중할 것을 호소한다. (4) 생태시는 인간의 인권(人權)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사회구조가 자연의 생명권(生命權)을 침탈하는 지배구조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인권과 생명권의 동시적(同時的) 회복을 지향한다. “사회생태주의”⁵⁾적 패러다임과 생태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일깨우는 시의 유형이다. (5) 생태시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이어져 있는 생명의 연결고리와 생명선(生命線)의 생태학적 순환구조를 포착하여 부각시킨다. (6) 생태시는 자연미(自然美)의 상실을 슬퍼하면서 자연미의 회복을 호소한다. (7) 생태시는 생태위기로 인한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을 묵시록의 어법을 통해 경고함으로써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신적 저항력을 일깨운다.⁶⁾ (8) 생태시는 인간의 생명권과 자연의 생명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9) 생태시는 물, 공기, 흙, 나무, 꽃, 새 등 자연의 모든 생물을 인간과 함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묘사한다. (10) 생태시는 사회개혁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相互依存)이 이루어지는 대안사회, 즉 “생태사회”⁷⁾의 비전을 노래한다.⁸⁾

3) Ernst Haeckel, *Generelle Morphologie der Organismen*, Berlin 1866. Bd. 2. S. 286.

4) 송용구,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묵시록의 성격과 기능」, 『뫼히너와현대문학』 제38집, 2012, 56쪽 참조.

5) P. C. Mayer—Tasch, a. a. O., S. 16, 19.

6) ‘묵시록’적 어법을 통해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는 ‘생태시’의 유형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묵시록의 성격과 기능”, 『뫼히너와현대문학』 제38집, 2012”를 참조할 것.

7) 홍성태,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49쪽.

8)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104~122쪽 참조.

김용민은 ‘생태문학’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1)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직접적,

이와 같이 필자가 규정한 생태시의 10가지 성격⁹⁾에 따르면 생태시는 파괴된 자연 환경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묘사에만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생태시는 자연의 생명력과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사실적으로 “표명 Manifestationen”¹⁰⁾하는 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들을 비판¹¹⁾하면서 인간과 자연 간의 상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사회를 찾아나가는 능동적 “참여문학 die engagierte Literatur”¹²⁾이 곧 생태시이다.

195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6.25 전쟁 직후의 폐허와 참상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보니 산업의 발전에도, 국가의 재건에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서부 독일에서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후(戰後)의 재건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었다. 생태계의 파괴 또한 가속을 얻었다. 정부 당국의 주도하에 서독 국민들은 산업활동에 매진했던 까닭에 생태계가 타락해가는 위기상황을 감지할 여유가 없었다. 발전과 개발의 급진적 속도는 자연의 생식능력과 자정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도미노 현상처럼 마침내 인간의 생명도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독일 문단에서 생태시의 성격을 선명히 보여준 시인으로 손꼽히는 한스 카스퍼 Hans Kasper, 한스 위르겐 하이제 Hans Jürgen Heise, 다그마르 닉 Dagmar Nick 등의 시작품들은 이러한 서독 지역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비록 “생태시”라는 장르가 독일과 한국의 문단에서 현대시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유형. (2)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현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성찰하는 유형. (3) 자연이나 환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생태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유형. (4)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생태계 문제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유형. (5) 생태계의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생태사회를 꿈꾸고 모색하는 유형.”

- 9) 송용구,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시학』, 시문학사, 2000, 32쪽 참조.

필자는 이 책에서 ‘생태시’의 유형을 7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념의 추상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의해 연구과정을 거쳐 본논문에서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게 되었다.

- 10) P. C. Mayer-Tasch, a.a.O., S. 12.

- 11) Vgl. Dieter Schlesak, ‘Wort als Widerstand. Paul Celans Herkunft-Schlüssel zu seinem Gedicht’, in: 『Literatur-Magazin』 Nr. 10/1979, S. 79.

- 12) P. C. Mayer-Tasch, a.a.O., S. 14.

페터 코르넬리우스 마이어-타쉬는 자신의 논문 「생태시는 정치적 문화의 기록물」에서 ‘생태시’를 “참여문학 die engagierte Literatur”이자 “생태학적 참여문학 Ökologisch engagierte Literatur”으로 규정하였다.

잡았던 시기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 역사적 배경의 공통점을 파악해보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통점들은 ‘전쟁’, 전쟁 후의 ‘가난’, 가난을 극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 개발’과 산업 발전의 급진적 속도 등이다. 이것을 “문명의 역기능(逆機能)”이라고 명명한다면 문명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의식이 양쪽 지역의 문단에서 “생태시”라는 유형을 현대시의 경향으로 고착시킨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다. 한국에서 생태시가 형성된 시기는 독일어권 지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급진적 산업화가 가져온 환경오염 현상은 한국 문단의 생태시를 태동시킨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생태문제”를 “사회문제”¹³⁾로 고발하는 시들이 이미 1960년대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박두진의 『인간밀림』,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등이 대표적 시집이다. 1970년대 들어 한국 사회 안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심각한 불화(不和) 현상을 낳은 정치적 부조리와 사회적 병리현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시들이 숫자를 더해갔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토대 위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닥쳐온 생존의 위기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생명의 파괴상황을 해부학 교실의 해부 실습처럼 세밀하게 재생하는 시들이 발표되었다. 1970년대 이하석, 이권청, 김광규 시인 등의 시를 손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시”라는 장르가 1960년대 한국 문단에서 박두진, 김광섭 등에 의해 맹아(萌芽)를 보여준 데 이어 1970년대 이후 현대시의 뚜렷한 경향으로서 부각된 것은 당대 한국 사회의 생태적 실상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학은 사회의 반영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독일어권 지역의 생태시와 한국의 생태시를 비교하는 작업은 1990년 논문 「독일의 생태시」¹⁴⁾가 독문학과와 한국 문단에 소개된 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時點)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고 판단된다.

생태문제 및 환경문제가 특정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적 범주 속에서 “시”라는 장르에 반영되고 있는 현상을 알려려는 취지, 사회와 문학 간의 긴밀한 상관성을 증명하려는 취지, 독일과 한국 양(兩)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구별하려는 취지, 양 문화권의 생태시에 나타난 테마의 성격과 표현방식의 특징을 탐색하는 가운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동서양의 문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시의 ‘상호문화주의’적 역할을 전망하려는 취지 등. 이러한 취지들을 메타 층위에서 통합할

13) 머레이 북친 지음, 『사회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옮김, 솔 출판사, 서울, 1997, 234쪽.

14) 이동승, 「독일의 생태시」, 『외국문학』, 1990 겨울.

수 있는 관점을 통하여 양 지역의 생태시를 심층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작업은 2000년 대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1990년 『외국문학』지에 「독일의 생태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생태시”라는 장르를 한국에 처음 소개하였던 학자도, 그리고 1998년 독일어권 지역의 대표적 생태시선집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을 번역하여 출간하였던 필자도 학술연구의 대상을 독일어권 지역의 작품에 한정시켜 왔다. 물론 필자가 2012년 5월 『뫼히너와 현대문학』 제38집에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묵시록의 성격과 기능」이라는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양 지역의 생태시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긴 하였으나 “묵시록”이라는 한 가지 언술방식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까닭에 양 지역의 생태시를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생태시의 정신적 기반이자 가장 중심적인 주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 혹은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음을 인정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양 지역의 생태시에서 읽을 수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세계관의 특징을 선명히 보여주는 독일어권 지역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관계” 철학을 분석의 렌즈로 삼아 양 지역의 생태시에 깃들여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공통적 성격을 해석하고자 한다.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간의 “만남” 및 소통을 강조했던 마르틴 부버의 철학은 양 지역의 생태시를 움직이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패러다임을 함의(含意)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부버의 철학을 분석의 관점으로 삼아 생태학적 세계관을 상호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독자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생태학과 문학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탐색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은 “생태학”과 “철학” 간의 통섭에서 생겨난 “생태철학”을 의미한다. 본 논문이 지향하는 집필의 궁극적 의도는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태철학”의 성격과 의미를 추출하여 재생하는 것이다. 물론 양 지역의 생태시에 나타난 현실주의적 자연관(自然觀), 역사적·사회적 상황, 표현방식 등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비교 과정에서 공통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차이점의 부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차이점의 구체적 분석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양 지역 생태시의 발생 배경에 관해서는 필자의 앞선 논문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묵시록

의 성격과 기능」에서 상세히 서술¹⁵⁾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논지 전개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생 배경을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서 발견되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공통적 성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세계 각 지역에 생태학적 세계관을 소통시킬 수 있는 ‘문화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생태시로부터 타진하게 될 것이다.

II.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현실주의적 자연관

- 이하석과 한스 카스퍼의 생태시 비교를 중심으로

생태시에서 자연은 사회적 현실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¹⁶⁾ 오염되어 가는 피해자로서의 자연, 피해상황을 몸으로 증언하는 고발자로서의 자연, 병인(病因)을 인간에게 전이시키는 보복자로서의 자연의 현실적 모습은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악셀 굿바디 Axel Goodbody의 진단과 같이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비판적 관점으로 성찰¹⁷⁾하는 것이 전통적 자연시와는 다른 생태시의 새로운 자연시적 성격¹⁸⁾이다. 1950년대 중반 구(構)서독의 한스 카스퍼, 한스 위트겐 하이에, 다그마르 닉,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 한국의 김광섭, 이하석 등 소수의 시인들은 양 지역에서 “생태시”라는 장르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독자들의 시각을 충격적인 생태파괴의 현장으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자연시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던 독자들의 비현실적 자연관을 현실적 자연관으로 전환하였다. 그들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정치의 부조리와 사회의 모순으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인간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고발하는 증언자이기도 했다. 1969년 한국의 시인 김광섭은 시집 『성북동 비둘기』의 표제작 「성북동 비둘기」에서 도시개발의 소용돌이에 의해 자연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산(山)”이라는 이름의 초록빛 “번지”를 “채석장”에게 빼앗기고 “새파란 하늘”로 “꽃

15) 송용구, 앞의 논문, 57~62쪽 참조.

16) 송용구, 「독일 ‘생태시’의 주제의식과 예술방식의 상관성」, 『카프카연구』 제26집, 2011, 308쪽 참조.

17) Vgl. Axel Goodbody, 『Ökologie und Literatur』, Amsterdam 1988, S. 25.

18) Vgl. Walter Gebhard, 「Naturlyrik. Von Loerke zur Ökolyrik」, in: 『neun Kapitel Lyrik』, hrsg. v. Gehard Köpf, München Wien Zürich 1984, S. 71~72.

기는”¹⁹⁾ 새들의 반(反)자연적 실상을 고발하면서 인간과 자연 간의 단절된 관계를 비판하였다. 고발과 비판의 언어 속에 메타퍼가 내포되긴 하였으나 시의 표현방식은 사실적 묘사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생태위기”²⁰⁾의 현실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한국 문단에서 생태문제를 시의 테마로 승화시킨 선두 주자는 시인 이하석이었다. 그는 “생태위기”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대표적 시인이었다. 자연을 소재로 다루는 이하석의 시가 자연시의 전통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치적 부조리와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투명한 속」을 비롯한 이하석의 생태시들이 오염된 “흙”과 병드는 생명체들의 몸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청진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 힘입은 것이었다.

유리 부스럭기 속으로 찬란한, 선명하고 쓸쓸한/ 고요한 남빛 그림자 어려온다, 먼지와
녹물로/ 얼룩진 땅, 췌조각들 숨은 채 더러는 이리저리 굴러다닐 때,/ 버려진 아무것도
더 이상 켜지지 않을 때,/ 유리 부스럭기 흙 속에 깃들여 더욱 투명해지고/ 더 많은 것
들 제 속에 품어 비출 때,/ 찬란한, 선명하고 쓸쓸한, 고요한 남빛 그림자는/ 확실히 비
쳐온다./ 껌종이와 신문지와 비닐의 골짜기,/ 연탄재 헤치고 붉은 솟아 더욱 확실하게
피어나/ 제비꽃은 유리 속이든 하늘 속이든 바위 속이든/ 비쳐 들어간다. 비로소 췌조
각들까지/ 스스로의 속을 더욱 깊숙이 흙 속으로 열며//²¹⁾ 어디에서든 바로 가지 못하고
비뚤어진/ 세상에는 온통 부러지고 망가진/ 길들뿐. 기름과 석탄 사이를 걸어서/ 줄
면서 또는 기도하는 몸짓으로/ 어두운 어깨만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먼지를 덮어쓴/ 폴
들은 깡통들의 투명한 표정을 감추고 있고/ 바람이 나무 등치를 흔들 때, 나무들/ 쇠 껴
안은 붉은 뿌리에서부터 쓸쓸해지고/ 머리에 구름과 모래를 인 사람들이/ 나무 뿌리들
이 감춘 물 속으로 그림자 던지며/ 지나갔다. 그들은 깡통과 비닐을 비껴 흐르는/ 길들
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기름들을 쏟고/ 깡통들을 풀밭에 던졌다. 그들은 스스로 흠여놓은/
것들 때문에 결코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리라.²²⁾ - 이하석의 「투명한 속」전문

이하석의 시 「투명한 속」은 그의 생태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작품이다. “유리

19) 김광섭, 시집 『성복동 비둘기』, 범우사, 1969, 23~25쪽.

20) 머레이 북친, 앞의 책, 244쪽.

21) 이하석, 시 「투명한 속」, 시집 『투명한 속』중에서, 문학과지성사, 서울, 1980. 38쪽.

22) 이하석, 시 「투명한 속」, 시선집 『고추잠자리』중에서, 문학과지성사, 서울, 1997. 26쪽.

부스러기”, “녹물”, “씻조각들”이 “스스로의 속을 더욱 깊숙이 훑 속으로 열어” 흙의 생명을 병들게 하는 현실상황이 정밀하게 재생되고 있다. 이 시는 군부정권이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산업발전의 속도를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황을 비추어준다. 기형적 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생명의 “길”은 “온통 부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공동의 행복을 나눠 갖고자 하는, 진정한 사람의 “길”은 사라져 버렸다. 도무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부러지고 망가진” 길 위에 서서 이하석의 시는 녹슬어가고, 부서져가고, 썩어가는 생명체들의 안타까운 몸짓들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청진기 역할을 맡았다. “비뚤어진 세상”은 생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한국 정치의 부조리를 암시하는 메타퍼이다. 그 부조리에 대한 시인의 비판의식을 함유하고 있다. 이하석의 시는 한국의 생태계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정치 및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진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시는 한국 시인들의 자연관이 자연시의 전통적 자연관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증명하는 모델이다. “우리 부스러기”, “녹물”, “씻조각들”이 “스스로의 속을 더욱 깊숙이 훑 속으로 열어”감에 따라 흙의 생명이 쇠약해지고, 흙에서 자라난 “나무들”과 “제비꽃”의 “뿌리”가 “쇠”의 무게에 짓눌려 “녹물”의 “붉은” 빛에 물드는 상황이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²³⁾는 어느 평론가의 말과 같이 자연은 한국 시인들에게 감흥을 주기 어려울 만큼 질적(質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자연의 현실상황이 독일의 문단에서는 한국보다 약 20여년 앞서 모습을 드러냈다. 1950년대 초반부터 독일어권 지역의 시인들은 자연의 생식능력과 생태계의 자정능력에 대한 불신(不信)을 직설적 어법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거의 논픽션에 가까운 증언과 진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 중에서도 한스 카스퍼 Hans Kasper의 연작시 「뉴스 Nachricht」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출간된 그의 시집 『뉴스와 기사 Nachrichten und Notizen』에 수록된 이 연작시는 기자의 현장 취재와 보도를 연상시키는 르포 Repo의 연술방식을 통하여 생태위기의 실태를 실증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재생하였다. 「뉴스」중의 한편인 「보험」을 살펴보자.

23)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서울, 1994.

보함. 우리가 쌓아올린/ 부(富)의 연기가/ 공기를/ 오염시킨다./ 해마다 사람의 폐 속엔/ 삼(三) 톤씩/ 매연이 쌓인다./ 그러나 생산의 수치(數値)밖에 모르는/ 전자형(電子形) 두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해 내리라./ 죽은 자들은/ 숨을 잘못 쉬었으며,/ 더욱 잘못된 것은/ 지나치게/ 숨을 몰아 쉬었기 때문이라고.

BOCHUM. Die Dünste/ unseres Reichtums/ vergiften/ die Luft./ Pro Lunge und Jahr/ drei Tonnen/ Ruß./ Aber die/ Elektronengehirne/ der Produktionskalkulation/ werden/ unfehlbar/ nachweisen./ daß die Verstorbenen/ falsch/ und vor allem viel/ zuviel/ geatmet haben.²⁴⁾ - 한스 카스퍼의 「보함 Bochum」전문

“공기”는 모든 생물들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나 “생산의 수치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은 “공기”의 근원적 생명력을 “오염시킨다”.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성장제일주의’ 풍조는 인간을 기계로 둔갑시킨다. 인격을 가진 개인을 “부(富)”를 쌓기 위한 부품으로 전락시킨다. 사회생태주의 social ecology 사상을 제시한 미국의 생태철학자 머레이 북친 Murray Bookchin의 말처럼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이용하는 현실 속에서는 자연조차도 “부”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기 마련이다. “전자형(電子形) 두뇌”만을 요구하는 조직사회 속에서 인간이 주변 세계를 돌아볼 여유를 갖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로 매도당하기 쉽고, 냉혹한 경쟁의 대열에서 스스로를 낙오시키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은 “생산의 수치(數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도구로써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물질주의 풍조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대기오염에 따른 인체의 손상과 생명의 위기현상을 공동의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적(私的) 문제로 축소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윤리적 횡포가 시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하석과 한스 카스퍼의 생태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연관이 있다. 현실주의적 자연관 혹은 비판적 자연관이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통합적 연관체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인들의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빌헬름 레만 Wilhelm Lehmann 등으로 대표되는 마술적 자연시파(自然詩派)의 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은 사회 바깥에 있는 세계이지만, 생태시에서 만나는 자연은 인간과 함께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적 파트너이다. 자연과 사회의 연관 시스템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마술적 자연시파의 비

24) Hans Kasper, 「Bochum」,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 hrsg. v. P. C. Mayer-Tasch, München 1981, S. 35.

현실적 자연관과 뚜렷이 구분되는 생태시의 현실주의적 자연관이다. 자연을 체험하는 시인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언제나 자연인식과 사회의식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체험 및 자연인식 속에서 갖게 되는 시인의 사회의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젓빛 지대 Grauzone”²⁵⁾로 변해가는 자연의 실상이 사회의 부조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 공기, 흙을 오염시키며 나무, 꽃, 새를 병들게 하는 원인들이 사회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곧 생태시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사회의식이다. 생태시는 이러한 사회의식을 독자에게 각성시키고 사회개혁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교육적 의도 혹은 “정치적 의도 die politische Intention”²⁶⁾를 갖고 있다. 이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시에서 사용해왔던 전통적 시어(詩語)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독일과 한국, 양 지역의 시인들은 독자의 현실적 자연관과 사회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매체로서 어떤 유형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제Ⅲ장에서는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 Hans Christoph Buch와 고희렬의 시를 비교함으로써 생태시의 시어가 갖는 반(反)예술적 성격과 기능을 분석해본다.

Ⅲ.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반(反)예술적 시어

-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와 고희렬의 생태시 비교를 중심으로

(...) 1952년 런던 상공에 하얗게 피어오른 구름떼가/ 불과 일주일만에 성인 4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 그 구름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스모그./ 이것은 스모크(연기)와 포그(안개)를 합쳐놓은 이름이다/ (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산화황과 질산이 결합된 물질로서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흔히 광화학 스모그라고도 한다)// 1976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200여명이 죽어갔다. 1945년 원폭피해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1950년대에 이어진 핵실험의 희생자들은/ (유산된 아기들과 기형아들을 제외하고서도)/ 전 세계에 걸쳐 수십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이후 북극의 빙벽에서는/ 방사능이 현저히 증가하여/ 앞날을 불안하게 하였다./ (특히 에스키모들과

25) Durs Grünbein, 『Grauzone morgens』, Frankfurt am Main 1988, S. 10.

26) P. C. Mayer-Tasch, a.a.O., S. 13.

유럽 북단의 라플란드 사람들이 위협에 처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록의 고기를 먹고 살고/ 순록은 이끼를 먹고 살며/ 이끼는 대기大氣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1964년 전투 편대의 한 비행기가/ 노스 다코타 주州 상공에서 폭탄 두 개를 분실하였다/ 히로시마 원자탄의 파괴력을 1000배 능가하는 폭탄이었다./ 자동 점화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마련된/ 4중 안전 시스템은/ 세 번이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노스 다코타 주(州) 먼데인 회사의 우유에서/ 갑자기 방사능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30마일 떨어진/ 태평양 밑바닥엔/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통들이 쌓여있다./ 1945년 이후 미국 원자력 위원회가 이곳 태평양에/ 통들을 가라앉힌 것이다. 구멍난 다수의 폐기통에서/ 방사능이 새어 나왔다./ 미 해군 잠수부가 어느 하나의 폐기통 위에서/ 어마어마한 해면海綿을 발견하였는데,/ 그 잠수부는 해면을 물 위로 끌어올리려 시도하다가/ 그만 상어떼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 글은 *결코 시詩가 아니다*²⁷⁾

(...) Nachdem die weisse Wolke 1952 in London/ innerhalb von einer Woche 4000 meist ältere Menschen/ getötet hatte,/ bekam sie einen Namen: SMOG,/ von *Smoke* plus *Fog* (chemisch gesprochen/ handelt es sich um eine Verbindung von/ Schwefeldioxyd mit Nitrogensäuren, die/ auf Sonnenlicht reagiert: *photochemical Smog*) - // 1976 starben in Hiroshima und Nagasaki/ 2200 Menschen an den Folgen der Atombomben/ von 1945. Die Opfer der Nukleartests in den 50er Jahren/ werden weltweit auf mehrere Hunderttausend geschätzt/ (Missgeburten und Erbschäden nicht mit gerechnet)./ Im ewigen Eis der Arktis ist seitdem/ eine besorgniserregende Zunahme der Radioaktivität/ zu verzeichnen/ (Lappen und Eskimos sind besonders gefährdet/ weil sie vom Fleisch der Rentiere leben/ die von Flechten leben/ die ihre Nahrung aus der Luft beziehen.) // 1964 verlor ein Flugzeug der strategischen Luftflotte/ über Nord-Dakota zwei Bomben/ mit der 1000fachen Sprengkraft der Hiroshima-Bombe./ Das vierfache Sicherheitssystem/ zur Verhinderung des automatischen Zündmechanismus/ versagte dreimal. Eines Morgens/ schmeckte die Milch in Mandan, Nord Dakota plötzlich radioaktiv. // Auf dem Grund des Pazifischen Ozeans,/ 30 Seemeilen vor der Küste von San Francisco/ lagern Giftfässer mit radioaktivem Abfall/ die die US-Atomenergiebehörde hier seit 1945/ ins Meer versenkt hat. Viele

27) 송용구,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 시문학사, 1998, 70~72쪽.

Fässer sind leck./ Auf einem von ihnen haben Taucher der US-Marine/ vor kurzem einen überdimensionalen Schwamm entdeckt/ der beim Versuch, ihn an die Oberfläche zu bringen/ von Haien gefressen wurde // *Dies ist kein Gedicht*.²⁸⁾

-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의 「베리 카머너를 위한 시 아닌 글 Kein Gedicht für Barry Commoner」중에서

독일 시인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의 「베리 카머너를 위한 시 아닌 글」은 다큐멘타리를 차용한 논픽션적(的) 생태시이다. 그가 작품 제목을 “시 아닌 글”이라고 밝혔듯이 이 작품의 표현방식은 의도적으로 시의 예술성과 미학을 부정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지구 곳곳에서 전개된 환경파괴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라는 논픽션의 형태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발을 통하여 생태문제를 지구촌의 사회문제로 부각시켰고, 전세제인의 공동 대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흐의 「시 아닌 글」은 그의 사회비평 정신이 낳은 문학적 산물이다. ‘문학적 산물’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 외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어는 논픽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 오염, 원폭 피해, 방사능 오염 사건이 발생 년도 및 통계 수치와 함께 정확히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아닌 글”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논픽션 속에 담겨있는 시인의 문학적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 시행(詩行)의 “이 글은 결코 시가 아니다”라는 화자의 독백은 반어적 표현이다. 생태계의 자정능력에 빨간 불이 켜지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기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 대하는 모든 작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술지상주의에 집착할 수 없다는 반성적 시론(反省的 詩論)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글은 결코 시가 아니다”라는 부흐의 발언은 생태문제에 대한 작가들의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참여문학적 선언이다. ‘언어’라는 청진기를 통해 자연의 병든 몸을 진단하고 자연을 치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소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 속에는 인류의 멸망과 생물의 멸종을 경고하는 문학적 선지자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의 작가들이 “생태위기”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실상을 가공 없이 재생하고 고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들이

28) Hans-Christoph Buch, 「Kein Gedicht für Barry Commone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 hrsg. v. P. C. Mayer-Tasch, München 1981, S. 145-146.

전통적 예술관에 집착하여 ‘예술을 위한 예술’만을 고수하려 든다면 우려되는 현상은 무엇일까? 언어 속에 예술적 기교가 반영될수록 생태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비판의식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는 것이 부흐의 견해로 읽혀진다. 기록과 고발의 표현방식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독일 시인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의 「베리 카머너를 위한 시 아닌 글」은 논픽션과 픽션 간의 경계를 허무는 참여문학의 모델이다. 자연을 소재로 다루어왔던 독일의 자연시가 1950년대 이후 시의 테마에서만 아니라 시의 표현방식에서도 전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어의 이러한 전면적 변화 양상은 1990년대 한국 시인들의 작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시어의 측면에서 고흥렬 시인의 「한강 下水」를 부흐의 시와 비교해보자.

(...) 드넓은 쓰레기의 강이다// 한강은 강이 아니다/ 그저 우리들의 오물을 실어나르는/ 콘베이어 벨트다/ 잠실에서 난지도까지는// 한강은 죽었다/ 그것은 내장이다 죽어서도 우리들의/ 삶을 옮겨다주는 물체다/ 눈 먼 마음이다// 복개하지 않은 거대한 하수구/ 한강은 흐르고/ 한강은 멈추지 않아도/ 서울에 와서 죽는다.²⁹⁾ - 고흥렬의 「한강 下水」중에서

고흥렬의 시 「한강 下水」에 나타난 “한강”은 과거의 “강”이 아니다. 수많은 시인들에 의해 생명의 젖줄로 칭송을 받아왔던 “한강”은 “이 글은 시가 아니다”라는 부흐의 강조처럼 더 이상 시적(詩的) 예찬을 받을 수 없다. “강”은 “오물”과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콘베이어 벨트”로 변하였다. 독일 시인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는 “스모그”에 의한 대기 오염과 핵(核)방사능에 의한 대양 오염의 현실을 고발하였지만 한국의 고흥렬 시인은 이 오염의 주된 원인을 고발하고 있다. “강”을 죽음의 “하수구”로 타락시킨 “오물”의 핵(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고발하고 있다. 그 “오물”의 핵은 현대인들의 물질적 탐욕이다. 자연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인간의 물질적 탐욕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은 멈추지 않아도 서울에 와서 죽는다”라는 화자의 발언은 자연의 보복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인간의 현실을 증언한다.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의 생태시와 고흥렬의 생태시에서는 표현방식의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부흐의 시어가 다큐멘터리 형식의 직설적 어법인 데 비하여 고흥렬의

29) 고흥렬, 「한강 下水」, 『마당식사가 그림다』, 고려원, 1995, 102쪽.

시어는 “콘베이어 벨트”, “거대한 하수구” 등 실제적 사물을 메타퍼로 전용(轉用)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흐와 고흥렬의 생태시에서 표현방식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 그것은 곧 ‘목격자의 언어’, ‘증인의 언어’, ‘진술자의 언어’, ‘고발자의 언어’라는 점이다. 한스 카스퍼와 이하석의 생태시에서도 선명히 드러났던 시어의 특징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독일과 한국, 양 지역에서 생태문제를 소재로 다룬 시작품들이 위의 네 작품과 같이 표현방식의 공통점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생태위기의 현실을 목격, 증언, 진술, 고발하는 시인들이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현실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시의 전통 속에서 분리되어 왔던 시인의 자연인식과 사회의식이 생태문제를 매개로 하여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는 ‘자연관의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스 카스퍼, 이하석,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 고흥렬의 작품 비교를 통해 드러난 생태시의 시어는 자연과 정치, 자연과 사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묘사하는 자연시의 전통적 표현방식을 부정하고 극복한다.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사회구조의 변화가 자연의安危(安危)와 자연의 질(質)에 끼치는 물리적 영향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현실을 은폐하거나 사회의 부조리를 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통, 인체의 손상, 생명의 위기 등, 생태계의 현실을 예술적 가공 없이 독자들에게 직접 중개할 때에 비로소 독자들의 생태의식과 사회의식을 함께 일깨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한스 카스퍼, 이하석,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 고흥렬 등 생태문제를 사회문제로 부각시킨 독일과 한국의 시인들은 은유, 상징, 수사, 리듬, 운율 등의 예술적 기교를 절제하고 있다. 극(極)사실주의적 표현방식이 두드러진다. 자연과 생태계의 실상이 은폐되거나 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적 의도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⁰⁾ 양 지역의 시인들은 당대의 자연을 통하여 당대의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병리현상들을 독자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까닭에 자연의 실상을 은폐하거나 미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문학작품이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을 막기 위하여 1950년대 이후 독일어권 생태시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생태시에서는 자연풍경을 수식하는 수사적 장치와 한정적 문장의 사용을 절제하는 대신에 명사와 동사를 위주로 간단

30) Vgl. Walter Gebhard, a.a.O., S. 74.

명료한 서술형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시 아닌 글”처럼 읽히는 반(反)예술적 시어의 시스템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생태위기의 사회적 원인들에 대하여 독자의 비판의식을 일깨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생태문제를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 모든 문학작품이 환경운동을 비롯한 대중의 사회운동에까지도 실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시어를 예술과 미학에 종속시키지 않는 극(極)사실주의적 표현방식의 수용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어의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변화한 것은 자연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문학적 현상이었다.

제II장에서 살펴본 한스 카스퍼의 「보름」에 나타난 1950년대 중반 서독의 현실 상황, 제III장에서 살펴본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의 「시 아닌 글」에 나타난 20세기 중반 이후의 전세계적 현실상황에 비추어볼 때, “마술적 자연시파 *die naturmagische Schule*”³¹⁾의 문학적 유물로서 20세기 중반까지 유전되어 왔던 비현실적·비정치적 자연관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한스 카스퍼를 비롯한 서독 시인들의 현실적 자연관과 비판적 현실관은 기존의 자연시에서 계승되어 왔던 전통적 테마를 변화시켰다.³²⁾ 테마의 변화는 인간과 자연 상호 간의 ‘관계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자연시 안에서 자연은 ‘시인’이라는 시적 주체의 객체이자 변용(變容)의 대상이었지만 생태시 안에서 자연은 ‘시인’이라는 개인의 사회적 동반자이자 독립적 존재로 변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그런데,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서 시대의 차이를 뛰어넘는 문학적 현상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 지역의 시인들은 시적 주체의 절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였다. 이 때, 그들이 바라보는 공동체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共生)하는 사회를 의미하였다. 그들은 자연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사회를 가꾸어나가는 파트너십을 자각하였다. 그들은 나무, 꽃, 새 등 자연의 개별적 생명체들을 독립적 존재로서 존중하고, 자연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과의 동등한 수평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자연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³³⁾ 생태학적 세계관 혹은 생태주의의

31) Fritz Minde, Bobrowskis Lyrik und die Lyrik der naturmagischen Schule, in: Johannes Bobrowskis Lyrik und Tradition, Frankfurt am Main 1981, S. 7.

32) 송용구, 「독일 ‘생태시’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연술방식의 상관성」, 『카프카연구』 제26집, 2011, 309쪽 참조.

33) 같은 논문, 313쪽 참조.

“시적 주제 안에 고립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부로

단계로 테마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의 중심인 IV장에서는 독일어권 지역의 철학자들 중 생태학적 세계관의 선명한 모델이 되었던 마르틴 부버 Martin Buber의 “관계” 철학을 분석의 관점으로 삼아 독일시와 한국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태학적 세계관과 ‘생명 중심’의 철학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양 지역의 생태시에서 가장 큰 공통분모로 나타나는, 가장 포괄적인 테마를 “생태 담론”³⁴⁾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IV.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세계관

- 마르틴 부버의 “관계” 철학과의 접점을 통해 바라본 한스 위르겐 하이제, 최영철, 이준관, 발터 헬레러, 페터 슈트의 생태시 그리고 그들의 생태학적 세계관

생태학적 세계관 혹은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과 함께 사회를 형성해나가는 파트너이자 공생(共生)의 동반자이다. 알빈 필 Alwin Fill이 강조한 것처럼 생태학적 세계관은 “큰 것에 비해 작은 것을 우대하고 힘의 계속적인 팽창이 약한 것의 희생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항하는”³⁵⁾ 패러다임이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자연을 인간보다 하위에 두고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종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인간이 “주체의 자기확대 과정”³⁶⁾을 통하여 “자연의 인간”을 망각하고 “인간의 자연”만을 생각하게 된³⁷⁾, 이른바 ‘인간중심주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이성(理性)이 있고, 자연에게는 이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성’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성만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지만 인간이 갖지 못한 자연의 고유

로 인식하는 시인들이 늘어 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관념 속에 가두어놓았던 ‘자연’을 해방하고 ‘자연’을 독립적 세계로 바라보면서 ‘자연’과의 동등한 수평관계를 회복해나갔다. 그들은 ‘자연’을 사회의 바깥에 존재하는 이질적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상호의존’의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34)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서울 1999, 35-36쪽.

35) Alwin Fill, 『생태 언어학/Ökologlinguistik. Eine Einführung』, 박육현 옮김, 한국문화사, 1999, 12쪽.

36)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21쪽.

37) 같은 책, 22쪽.

한 속성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생태학적 세계관의 판단 기준이다. 인간에게 물질적 자원과 정서적 요소를 공급하는 것은 자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능력, 역할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써 마땅히 자연의 생식능력과 자정능력을 보호해주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이성적 판단이다. 이성을 자연에 대한 우위의 절대조건으로 믿어왔던 ‘이성만능주의’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이성의 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과 자연 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차등의식을 극복하고 상호의존(相互依存)의 관계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생태학적 세계관 혹은 생태주의는 자연에 대한 고정관념을 낳았던 이성만능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생명중심’의 패러다임을 인간의 생활윤리로 정착시키려는 일종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생태학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생명중심’의 생활방식을 “생태문화”라고 한다면, 생태문화는 한 사람, 한 송이 꽃, 한 그루 나무, 한 자락 풀 등 모든 종(種)의 독립성, 개별성, 고유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추구한다. 나무도 사람에게 “만남”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새도 사람과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자연과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사상과 의미의 접점(接點)을 갖는다. 부버는 자신의 대표적 저서 『나와 너 Ich und Du』에서 “나무 ein Baum”³⁹⁾를 “그것 es”⁴⁰⁾이나 “대상 Gegenstand”⁴¹⁾으로 규정하지 말고 “나무”를 “너”⁴²⁾라는 독립적 존재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⁴³⁾ 부버의 사상에 따르면 자연은 사람의 소유물이나 부속물

38) 송용구, 「생태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적 상호의존 관계와 제2외국어 교육, 『카프카 연구』 제16집, 한국카프카학회, 2006. 121쪽 참조. “‘생태주의’는 생태계의 자연법칙과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자연법칙은 약육강식 혹은 적자생존의 법칙과 공생(共生) 혹은 상생(相生)의 법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의 종(種)과 다른 종(種)이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생명을 보존해나가는 상생의 법칙을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의존 관계로 전용(轉用)하자는 이성적(理性的) 요청이 ‘생태주의’이다. ‘생태주의’는 이성적 판단과 성찰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한 철학인 것이다.”

39) Martin Buber, 『Ich und Du』, Heidelberg 1974, S. 13~14, 31.

40) Ebd., S. 14.

41) Ebd., S. 10, 13.

42) Ebd., S. 15~16.

43) 마르틴 부버, 『나와 너』, 표재명 옮김, 문예출판사, 서울, 1977, 13~14쪽 참조.

이 아니다. 자연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⁴⁴⁾ “너”이다.⁴⁵⁾ 인간으로서의 “나”와 자연으로서의 “너”는 존재양식, 역할, 능력에 있어서 “차이 Andersheit”⁴⁶⁾가 있다. 이 “차이”를 존중할 때에 “나”와 “너”는 “상호 관계”⁴⁷⁾를 맺게 된다. 나무로부터 ‘산소’라는 물리적 도움과 ‘종이’라는 문화적 도움을 받는 것처럼 자연인 “너”의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도움을 받는 “나”의 상황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온 존재를 기울여 mit dem ganzen Wesen”⁴⁸⁾ “너”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자연에게서 물질적 자원과 정서적 평안을 얻으므로 인간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보답으로써 인간의 “존재를 기울여” 자연을 보살피는 생활방식. 이러한 생활방식이 곧 양자의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 “나”와 “너”의 “상호 관계”를 인간관계에 제한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관계”로 확대하였던 마르틴 부버의 사상은 생태학적 세계관의 적절한 모델이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자연으로서의 “너”라는 존재와 만나서 서로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함께 형성하고 Er(Baum) hat mit mir zu schaffen”⁴⁹⁾ 함께 가꾸어가는 사회, 즉 생태사회의 비전이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하석과 한스 카스퍼의 생태시에서 볼 수 있었던 극(極)사실주의적 단계를 뛰어넘어 이상주의를 표방하는 생태시의 또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실극복의 과정을 거쳐 미래의 대안사회로 나아가려는 진보적 지향성을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수평적 “상호 관계”를 추구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을 선명히 보여주는 한스 위르겐 하이제 Hans Jürgen Heise의 시를 만나보자.

“야생초야/ 모든 사람들이/ 장미만을 사랑스러워하는/ 이 시대에/나는 너를 보살피는
산지기가 될 거야.”

44) Vgl. Martin Buber, a.a.O., S. 12.

“das Leben mit der Natur”

45) Vgl. Ebd., S. 30~33.

46) Gerhard Wehr, 『Martin Buber』, Reinbek bei Hamburg 1968, S. 17.

47) Ebd., S. 14.

“Beziehung ist Gegenseitigkeit”. 부버는 “관계”의 상호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gegenseitig”와 “wechsel”을 사용하고 있다.

48) Ebd., S. 9.

49) Ebd., S. 14.

Unkraut/ ich will dein Gärtner sein/ in diesen Zeiten/ da alle/ die Rosen hätscheln 50)

- 한스 위르겐 하이제의 「약속 Versprechen」전문

1959년에 발표된 한스 위르겐 하이제의 시 「약속」에서 생태시의 정신적 기반인 생태학적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시의 화자는 들판에서 거칠게 자라난 “야생초”를 “너 du”라고 부르며 “너”와의 동거(同居)를 “약속”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만남 Begegnung”⁵¹⁾,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하여 양자의 “상호 관계”를 추구했던 마르틴 부버의 패러다임과 다르지 않다. 시의 화자가 다짐하는 “약속”은 모든 생물이 “생명을 잇고 꽃피울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명권(生命權)의 “평등”⁵²⁾을 옹호한다. 그는 이러한 생태학적 세계관에 의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 관계”로 돌려놓고 있다. 그는 “야생초”를 비롯한 모든 동식물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생물의 존재가치를 측량할 수 있는 척도는 인간의 이성, 언어, 문명 등이 아니다. 생물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척도는 ‘생명’ 그 자체일 뿐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독립적 개체들의 평등을 존중하는 독일 시인의 생태학적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세계관은 한국시 안에 어떻게 융해되어 있는가? 2006년에 발표된 최영철의 시 「오후 두 시」를 만나보자.

한 상 차려 놓은 늦은 밥상에 날아든 파리 한 마리/ 생선 나물 밥 차례대로 찍어 맛보

50) Hans Jürgen Heise, 「Versprechen」,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 hrsg. v. Peter Cornelius Mayer—Tasch, München 1981, S. 56.

51) Martin Buber, a.a.O., S. 18.

52) 구승희, 앞의 책, 105쪽.

구승희는 노르웨이 철학자이자 ‘심층생태론(deep ecology)’자인 네스(Arne Naess)의 ‘생물권 평등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심층 생태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 문명의 개입과 간섭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인간을 자연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보며, 이성과 문명을 암적인 힘으로 규정한다. 자연과 인간 혹은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극단적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심층 생태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고, ‘학문 연구’와 ‘학술 심포지움’ 등의 이성적, 문명적 활동을 하고 있는 문명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심층 생태론’은 비현실성과 모순을 지닌 이론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네스가 제시한 ‘생물권 평등주의’만큼은 종(種)의 독립적 존재가치를 옹호하고 ‘생명’을 유지할 권한을 모든 종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이다.

다가/ 제 식성에 맞지 않는지 푸르르 날아가버린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이 마다하고 간
 밥상/ 한동안의 적요가 만든 일직선을 따라/ 허공을 가르며 햇살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
 걸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한 먼지 알갱이들/ 잘 왔다/ 이리 와 앉아 수저를 들어라.⁵³⁾

- 최영철의 「오후 두 시」전문

한스 위르겐 하이제의 시 「약속」과 최영철의 시 「오후 두 시」는 문화권의 경계를 허물고 반세기의 시대적 차이마저도 뛰어넘는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다. 두 작품을 움직이는 정신적 원소(元素)는 생태학적 세계관이다. 더욱이 마르틴 부버가 말했던 “나와 너”의 “관계” 철학을 통해 바라본다면 최영철의 시와 하이제의 시 사이엔 정신적 접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하이제 시의 화자가 “야생초”를 “너”라고 불렀듯이 최영철의 시에 등장하는 “파리”도 화자에 의해 “너”라는 독립적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다. 비록 “파리”가 인격체는 아니라고 해도, 비록 “너”라는 호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파리”는 “야생초”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지닌 생명체인 까닭에 “너”의 위치로 존재의 층위(層位)가 상승하고 있다. 미물로 천대받던 “파리”조차도 시인의 “밥상”에 앉으면 시인의 “손님”이 될 수 있다. 인간인 “나”와 수평적 “상호 관계”를 맺는 “너”가 될 수 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차별 없이 초청할 수 있는 시인의 “밥상”은 인간 상호 간의 평등을 종(種)들 간의 평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 속에서 열리는 “햇살 고속도로”는 평등의 길이다. “고속도로”의 휴게소인 시인의 “밥상”은 평등의 세계이다. 이 곳은 인종, 종족, 권력, 명예, 지위의 차등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을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이는 사회이다. 이 곳은 하늘과 대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이름으로 모든 생물을 가족처럼 품어 안는 “생태사회”이다. 이러한 생태사회를 향한 전망과 동경이 독일의 문단에서는 - 하이제의 시와 같이 -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맹아를 보여주다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가시화하였고, 한국의 문단에서는 1990년대의 맹아기를 지나 - 최영철의 시와 같이 -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생태사회를 향한 비전과 동경의식이 맹아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1990년대 전반기에 발표된 이준관의 「가을 떠갈나무숲」을 분석해본다.

나는 떠갈나무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 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 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

53) 최영철, 시 「오후 두 시」, 시집 『호루라기』중에서, 문학과지성사, 서울, 2006, 114쪽.

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핏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
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 나는 떡갈나무에
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있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거야, 있을 떨군다.⁵⁴⁾

- 이준관의 「가을 떡갈나무숲」중에서

앞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제시됐던 마르틴 부버의 “관계” 철학과 생태학적 패러다임 간의 접점을 통하여 이준관의 시를 탐색해보자. 시의 화자와 “나무”는 각각 독립적이고 고유한 존재이다. 화자는 “나무”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나무”는 화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양자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마르틴 부버의 말처럼 수평적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나무”와 화자는 “숲”이라는 생명공동체 안에서 “마주보고 살아가는 Er(der Baum) lebt mir gegenüber”⁵⁵⁾ 반려가 되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나”와 “너”로 대변되었던 화자와 “나무”의 관계는 마지막 연에서 역할의 역전(逆轉)을 보여준다. 주체였던 화자가 “너”라는 타자(他者)로서, 타자였던 “나무”가 “나”라는 주체로서 존재의 위치를 교환한다. 부버가 강조했던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통한 “상호 관계”의 “현실적 삶”⁵⁶⁾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무”를 “너”로 바라보았던 화자가 이제는 “나무”의 “너”가 되어 “나무”인 “나”에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고백한다. 화자의 “너”였던 “나무”가 이제는 “나”의 위치에서 화자인 “너”에게 “마지막” 위로의 “손”을 내민다. 상호 관계의 핵심인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부버가 말하였듯이 “나무”와 화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작은 사회를 “함께 형성해가는 Er hat mit mir(Sprecher) zu schaffen”⁵⁷⁾ 것이다. 이준관의 시에 나타난 “숲”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이루어지는 생태사회의 축소 모델이다.

도시와 자연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 문명과 자연 사이의 상생이 이루

54) 이준관, 시 「가을 떡갈나무숲」, 시집 『가을 떡갈나무숲』중에서, 나남, 1992, 16-17쪽.

55) Martin Buber, a.a.O., S. 14.

56) Ebd., S. 18.

"Alles wirkliche Leben ist Begegnung."

57) Ebd., S. 14.

어지는 현대적 생태사회를 실현하려는 이상주의적 비전은 독일 문단에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발터 헬레러 Walter Höllerer, 페터 쉬트 Peter Schütt 등의 시작품을 대표적 모델로 손꼽을 수 있다. 1979년 문예지 『악첸테/Akzente』제4권에 발표된 발터 헬레러의 「시조새의 꿈 Archäopteryx-Traum」에서 시의 화자는 “시조새”를 향해 “너는 내 곁에 놓고, 이따금 나는 네 등 위에 누워 우리는 시름 한 점 없이 웃었노라! du neben mir, ich dann auf dir, lachten wir unser Steinbruchlachen!”⁵⁸⁾고 고백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기 이전의 원초적 합일상태를 그리워하고 있다. 다소 복고적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생태사회를 향한 동경의식이 짙게 배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시조새”로 대표되는 자연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동등하게 존중하는 평등의식이 헬레러의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과 인간의 수평적 “상호 관계”를 추구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⁵⁹⁾ 그러나 시에서 설정된 시공(時空)의 배경이 고생대의 원시적 공간이고, “시조새”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독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뚜렷이 전하고 있음에도 현실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적 현실상황을 통하여 생태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페터 쉬트의 시 「소유관계 Besitzverhältnisse」를 만나보자.

북해 연안의/ 모래톱에 펼쳐진 바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것도 아닙니다/ 그 바다는 정유회사 ESSO의 것도/ BP의 것도 아닙니다/ 그 바다는 유일하게도/ 바닷가를 달리는 사람들과 모래톱의 달팽이들/ 줌조개와 후추조개/ 게와 새우들/ 바다전갈들/ 가자미와 청어들의 것입니다/ 그 바다는 빙어와 큰 가시고기/ 줄무늬 청어와 혀가자미/ 물개와 바다표범/ 검은머리 물떼새/ 작은 도요새/ 흑기러기와 솜털오리/ 장다리 물떼새와/ 갈매기와 바다제비의 것입니다/ 그 바다는 샤프호른 지방의 조류보호 감시자와/ 쥘트 지방의 천진난만한/ 별거숭이 아이들의 것입니다/ 나는 단호히 주장합니다/ 이 소유관계를/ 결코 바꾸지 말 것을

Das Wattenmeer/ an der Nordseeküste/ gehört weder der Bundesrepublik/ noch Holland oder Dänemark,/ es gehört nicht der ESSO/ und nicht der BP,/ es gehört

58) Walter Höllerer, 「Archäopteryx-Traum」,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 hrsg. v. P. C. Mayer-Tasch, München 1981, S. 28.

59) 송용구, 「독일 ‘생태시’에 나타난 주제의식과 예술방식의 상관성」, 『카프카연구』제26집, 한국 카프카학회, 2011, 325쪽 참조.

einzig und allein/den Strandläufern und Wattschnecken,/ den Pfahl- und Pfeffermuscheln,/ den Krabben und Garnelen,/ den Seeskorpionen,/ den Schollen und Heringen,/ den Stinten und Stichlingen,/ den Sprotten und den Seezungen,/ den Seehunden und Kegelrobben,/ den Austernfischern,/ den Strandläufern,/ den Ringelgänsen und Eiderenten,/ den Säbelschnäblern und Regenpfeifern,/ den Möwen und den Seeschwalben,/ es gehört dem Vogelschutzwärter/ von Scharhörn und den keuschen/ Nackedeis von Sylt, und ich/ plädiere entschieden dafür,/ an diesen Besitzverhältnissen/ nichts zu ändern.⁶⁰⁾

- 페터 쉬트의 「소유관계」 전문

1981년 페터 쉬트의 시집 『꿈과 일상 사이에서』에 수록되었다가 같은 해 생태시 선집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에 재수록된 이 작품은 시인의 생태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프로파간다 Propaganda 형태의 “생태 담론”⁶¹⁾을 펼친다. 시의 화자는 “북해 연안”의 “바다”가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속해 있는 공동의 터전임을 “단호히 주장”한다. “바다”는 결코 개인의 전유물도, 회사의 자본도, 국가의 재산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시인이 “주장”하는 “소유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소유관계”는 “바닷가를 달리는 사람들”, “달팽이들”, “좁조개”, “후추조개”, “게”, “새우”, “바다전갈” 등 모든 생명체들이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패러다임, 즉 생태학적 세계관에 정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바다”가 개인과 회사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공생(共生)의 터전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존재도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굳이 “바다”의 주인을 찾는다면 “조류보호 감시자”와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아이들”을 포함하여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화자의 “주장”을 제 IV장의 중심인 생태학적 세계관과 마르틴 부버의 “관계” 철학 간의 접점을 통해 해석해보자.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가자미”, “청어”, “빙어”, “가시고기”, “줄무늬 청어”, “혀가자미”, “물개” 등의 모든 생물은 인간의 지배권 아래 종속된 “대상”⁶²⁾이 아니며 효용과 기능만을 만족시키는 물건으로서의 “그것”⁶³⁾도 아니다. “바다표범”,

60) Peter Schütt, 「Besitzverhältnisse」,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 hrsg. v. P. C. Mayer-Tasch, München 1981, S. 196, 197.

61)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서울 1999, 35-36쪽.

62) Martin Buber, a.a.O., S. 10.

63) Ebd., S. 11.

“검은머리 물떼새”, “작은 도요새”, “흑기러기”, “숨털오리”, “장다리 물떼새”, “갈매기”, “바다제비” 등 모든 생물은 사람인 “나”와 더불어 “바다”를 공동의 터전으로 공유하고 있는 “너”이다. 자본의 값으로 환산되거나 상품의 등급으로 평가될 수 없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너”이다.

페터 슈트, 발터 헬레리, 이준관, 최영철, 한스 위르겐 하이제의 시에서 읽을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시적 화자의 평등의식은 독일과 한국의 시가 공유할 수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내용이자 생태시의 핵심적 테마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세계관이 시인들의 시작품 속에서 중심적 테마를 형성하게 된 것은 자연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49년 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1962년 군사정부의 출범 이후 산업발전의 직선적 질주에 가속을 붙여줄 도구이자 수단은 물, 공기, 흙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무, 꽃, 새를 비롯한 동식물이었다. 양 지역의 자연은 물질주의적 메커니즘 속에서 병들어가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였다. 1950년대 이후 독일의 시인들이 경험했던 자연,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인들이 만났던 자연은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더 이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양 지역의 시인들은 더 이상 자연을 시적 주체의 관념 속에서 상상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로부터 도피하여 시인의 시적 주체를 보호받기 위해 자연을 피안(彼岸)의 세계로 동경할 수도 없었다. 자연의 몸이 병들어가고 자연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독일과 한국, 양 지역의 시인들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진단하고 자연의 현실적 상황을 통해서 사회의 병리현상을 투시하게 되었다. 생태문제를 사회문제로 동일선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생태시 안에서 자연이 인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 관계”의 파트너이자 사회의 근간으로 격상된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인들의 패러다임이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바뀐 데 따른 테마의 변이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앤서니 기든스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 문제는 적어도 세계의 불평등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⁶⁴⁾고 말했다. 그의 말을 실증하듯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의 재앙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연파괴와 환경오

염으로 인한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닐까? 21세기에 접어든 인류는 랄프 슈넬 Ralf Schnell의 말처럼 여전히 “손상된 세계”⁶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생태문제의 심각성은 비교적 완화 되었지만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지역 등 비(非)서구 지역의 환경오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제 생태 문제는 전(全)지구적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현대시는 서구 지역의 생태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비서구 지역의 생태문제까지도 시의 소재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독일과 한국 양 지역의 생태시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게 된 동기도 생태문제가 특정 지역의 사회문제가 아닌 지구촌의 사회문제라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탐색한 독일의 시인 페터 슈트, 발터 쾰레리, 한스 위르겐 하이제 그리고 한국의 시인 최영철, 이준관, 이하석 등의 생태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분모는 시인들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이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분석의 틀로 제시한 마르틴 부버의 “관계” 철학을 통해 비교해본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는 한층 더 뚜렷한 생태의식의 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자연 간의 “만남” 및 소통을 강조했던 마르틴 부버의 사상은 양 지역의 생태시를 움직이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패러다임을 함의(含意)하고 있었다. 자연과 인간의 고유한 독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인 “나”와 자연인 “너”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가장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자 가장 인간다운 생활방식으로 승화시켰던 마르틴 부버의 철학은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들 사이에 또 하나의 정신적 “상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연결고리를 제공해주었다.

한스 위르겐 하이제의 시 「약속」에서 시적 화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야생초”, 최영철의 시 「오후 두 시」에서 시적 화자의 “손님”으로 존재가 격상되는 “파리”, 페터 슈트의 시 「소유관계」에서 “바다”라는 생명공동체의 주민으로서 사람과 함께 “바다”를 공동의 생활터전으로 소유하는 수많은 동식물, 이준관의 시에서 시적 화자를 “너”로 맞이하여 “너”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는 “떡갈나무” 등은 사람의 “온 존재를 기울여” 도와주는 것이 온당한 “상호 관계”의 파트너이자 생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었다.

64)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박찬욱 외 옮김, 생각의 나무, 2002, 210쪽.

65) Ralf Schnell, 『Die Literatur der Bundesrepublik. Autoren, Geschichte, Literaturbetrieb』, Stuttgart 1986, S. 314.

마르틴 부버의 철학과 생태학적 세계관의 정신적 공유시대 안에서 살펴본 생태시는 독일과 한국의 지역 간 경계, 사회 간 경계, 문화 간 경계를 탈경계화하는 ‘생태주의’적 테마의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는 양 지역의 문화권에 생태의식과 환경의식을 소통시키는 ‘문화 매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세계 각 지역에 생태의식과 환경의식의 네트워크를 넓혀나가는 범세계적 문화 매체의 기능을 생태시로부터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화 생태학”⁶⁶⁾적 의미를 생태시에 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생태학적 세계관 혹은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세계적 소통과 공유만이 지구촌의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 고진하·이경호(역음):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 다산글방, 1991.
 고희렬: 『서울은 안녕한가』, 삼진기획, 1991.
 고희렬, 「한강 下水」, 『마당식사가 그림다』, 고려원, 1995,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김광섭, 시집 『성북동 비둘기』, 범우사, 1969,
 김용만: 『생태문학』, 책세상, 2003.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마르틴 부버,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77.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역, 숲, 1997.
 머레이 북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박홍규 역, 민음사, 1998.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숲, 1999.
 송용구, 「독일과 한국의 ‘생태시’에 나타난 묵시록의 성격과 기능」, 『뫼히너와 현대문학』제 38집, 한국뫼히너학회, 2012.
 송용구, 「독일 ‘생태시’의 주제의식과 연술방식의 상관성」, 『카프카연구』제26집, 2011.
 송용구, 「생태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적 상호의존 관계와 제2외국어 교육」, 『카프카 연구』제16집, 한국카프카학회, 2006.

66) 이재성, 『열림과 소통의 문화생태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5쪽.

- 송용구: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시학』, 시문학사, 2000.
- 송용구,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 시문학사, 1998.
- 알빈 필 Alwin Fill: 『생태 언어학 /Ökologuistik. Eine Einführung』, 박옥현 옮김, 한국문화사, 1999.
-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 박찬욱 외 옮김, 생각의 나무, 2002.
- 이동승: 「독일의 생태시」, 계간 『외국문학』, 1990년 겨울.
- 이재성, 『열림과 소통의 문화생태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 이준관, 시 「가을 떠갈나무숲」, 시집 『가을 떠갈나무숲』중에서, 나남, 1992.
- 이하석, 시 「투명한 속」, 시선집 『고추잠자리』중에서, 문학과지성사, 1997.
- 이하석, 시 「투명한 속」, 시집 『투명한 속』중에서, 문학과지성사, 1980.
- 최영철, 시 「오후 두 시」, 시집 『호루라기』중에서, 문학과지성사, 2006.
- 홍성태,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학과과학사, 2004.
- Buber, Martin: 『Ich und Du』, Heidelberg 1974.
- Gebhard, Walter: Naturlyrik. Von Loerke zur Ökolyrik, in: neun Kapitel Lyrik, hrsg. v. Gehard Köpf, München Wien Zürich 1984.
- Goodbody, Axel: Ökologie und Literatur, Amsterdam 1988.
- Grünbein, Durs: 『Grauzone morgens』, Frankfurt am Main 1988,
- Haekel, Ernst: Generelle Morphologie der Oaganismen, Berlin 1866. Bd. 2.
- Krörrich, Otto: die deutsche Lyrik der Gegenwart, Stuttgart 1971.
- Marsch, Edgar: Moderne deutsche Naturlyrik, Stuttgart 1980.
- Mayer-Tasch, Peter Cornelius(Hrsg.):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 München 1981.
- Ders.: Ökologische Lyrik als Dokument der politischen Kultur, in: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hrsg. v. P. C. Mayer-Tasch, Mün-chen 1981.
- Minde, Fritz: Bobrowskis Lyrik und die Lyrik der naturmagischen Schule, in: Johannes Bobrowskis Lyrik und Tradition, Frankfurt am Main 1981
- Schlesak, Dieter: 「Wort als Widerstand. Paul Celans Herkunft-Schlüssel zu seinem Gedicht」, in: 『Literatur-Magazin』 Nr. 10/1979,
- Schnell, Ralf: Die Literatur der Bundesrepublik. Autoren. Geschichte. Literaturbetrieb, Stuttgart 1986.
- Wehr, Gerhard: 『Martin Buber』, Reinbek bei Hamburg 1968.

Zusammenfassung

Vergleichstudie über die Ökolyrik in Deutschland und Korea

– Mit Fokussierung auf ökologische Weltanschauung

Song, Yong Ku (Korea Uni)

Deutsche Dichter wie Hans Kasper, Hans Christoph Buch, Hans Jürgen Heise, Walter Höllerer, Peter Schütt usw. und koreanische Dichter wie Lee Ha Seok, Ko Hyung Lyul, Choi Yeong Cheol, Lee Jun Kwan usw. haben mit den poetischen Wörter darüber gestaltet, dass Mensch und Natur das Zusammenleben in der gegenseitiger Beziehung führen müssen. Zwischen diesen beiden Länder gibt es viele Gemeinsamkeiten, dass die meisten ökologischen Dichter die Wechselbeziehung zwischen dem Menschen und der Natur als Partnerschaft oder Freundschaft poetisiert haben. Sie versuchen, das Kraut sowie den Baum und den Vogel von dem lyrischen Subjekt zu befreien, und beziehen sich parallel auf die eignen natürlichen Kreaturen. Von daher erscheinen in ihren ökologischen Gedichten die natürlichen Kreaturen als Partner des Menschen.

Dadurch kann man die Vision als die ökologische Utopie aus ihren ökologischen Gedichten erkennen. Die deutschsprachig - und koreanischen Dichter haben das verschmutzte Ökosystem konsequent-realistisch beschrieben. Zugleich gestalteten sie ‘Zusammenleben’ der Natur und des Menschen. Zur Visualisierung der ‘ökologischen Utopie’ haben sie ‘die Wörter als interdependente Beziehung’ verkörpert. Sie protestierten gegen alle Ursachen der Umweltverschmutzung und damit expressionierten die interdependente “Wechselbeziehung” zwischen der Natur und dem Menschen ganz ästhetisch, wie Martin Buber in seinem Text “Ich und Du” gesagt hat. In deutschsprachig-ökologischen Gedichten, die seit 1950 Jahren veröffentlicht worden sind, und koreanisch-ökologischen Gedichten, die seit 1970 Jahren veröffentlicht worden sind, finden sich die poetischen Wörter, die die interdependent-gegenseitige Beziehung zwischen den individuellen Menschen und den eignen natürlichen Kreaturen lyrisch beschreiben. Diese deutsch - und koreanisch - ökologischen Dichter haben ihre poetischen Werke als politische Aufklärungsmedien, die den Lesern die ökologische Weltanschauung oder die

ökologischen Gedanken vermitteln können, veröffentlicht. Die deutschsprachig - und koreanisch - ökologischen Gedichten können auch die kulturelle Funktion der ‘Kultursmedien’ verwirklichen, womit sich die ökologische Weltanschauung oder das Ökobewusstsein in die deutsch - und koreanischen Kulturräume verbreiten lässt.

검색어: 비교, 생태시, 독일과 한국, 생태학적 세계관,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관계

Stichwörter: Vergleich, Ökolyrik, Deutschland und Korea, ökologische Weltanschauung
die Wechselbeziehung zwischen dem Menschen und der Natur

필자 E-Mail: syk6595@korea.ac.kr

논문투고일: 2012. 10. 29, 논문심사일: 2012. 11. 20, 게재확정일: 2012. 12. 3.